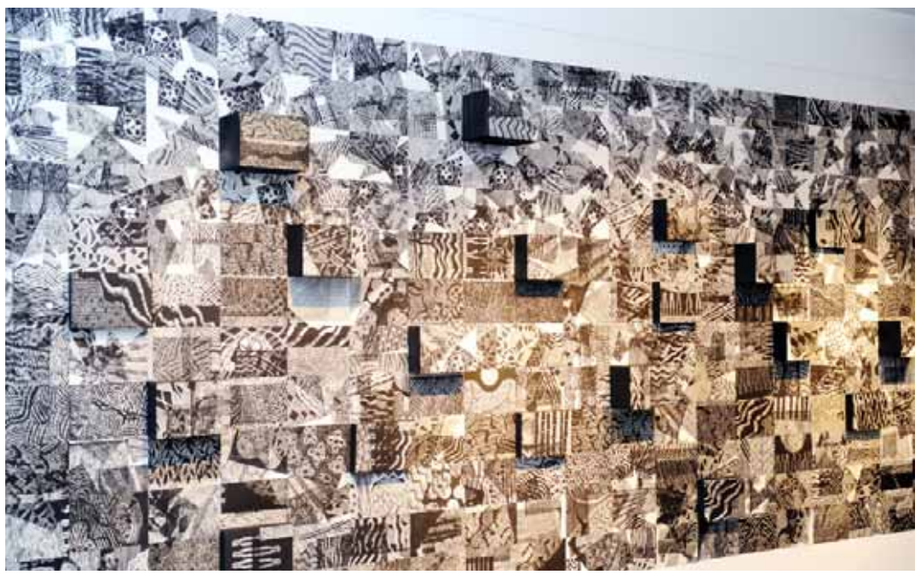
“침체일로 목판화 다시 살아나는 계기되길”



‘명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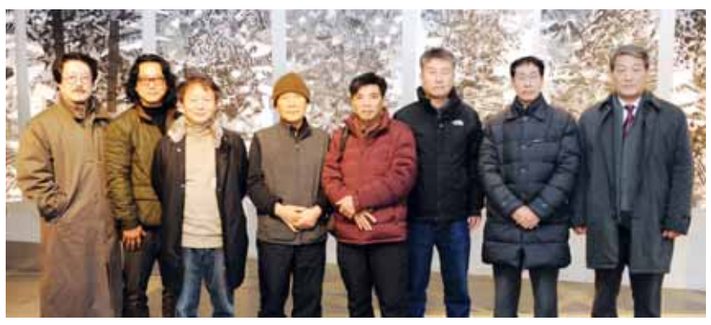
‘명상-157’

30년 목판화 외길…강행복 개인전

판화계 인사들 한자리…한국 판화 방향 제시

“젊은 작가 육성 서양화에 내준 자리 되찾아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내달 31일까지



왼쪽부터 김진하 서울 나무화랑대표, 박구환 광주현대판화가협회장, 김억 한국목판화협회장, 김영만·윤여걸·강행복·김상구 작가,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

짧은 선으로 가득 찬 화폭은 현란한 시각적 연출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3차원 화면이나 홀로그램을 보는 듯한 색의 조화는 판화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추상적 조형미가 느껴진다.

30년간 묵묵히 목판화 외길을 걸어온 강행복(63) 작가가 2016년 1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상록전시관에서 ‘길 위의 길’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139점. 강 작가가 광주에서 처음 개최하는 개인전이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전시다. 강씨는 중앙화단과 일본,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강씨는 최근작 ‘명상’, ‘명상의 나무’ 시리즈 등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구상미술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율동감 있는 선과 단편적 소재들을 불규칙하게 배치하며 비구상으로 작업을 확장시킨 강씨는 더욱 자유로운 표현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건조가 빠른 수성물감을 사용하면서 가벼운 느낌과 함께 여러 색을 중첩해서 찍기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 찍어내는 종이도 한지로 대체하며 기존의 작품에 비해 지면의 한계를 벗어났다.

목판에 새겨지는 별꽃, 나무, 구름 등 작가의 기억 속에서 끌어올린 이미지들은 주제 ‘길 위의 길’을 묘사하고 있다.작가의 내면에 존재한 이미지들이 흩어지고 섞이면서 율동감이 생기고 디자인적 요소로 새롭게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특징 중 하나는 작품 설치다. 지금까지의 목판화 전시는 평면작품을 규칙적으로 벽에 걸었지만, 이번에는 수백 장의 판화지를 이용해서 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설정했다.

강씨는 가로·세로 30cm 이내의 흑백 판화작품들을 작은 패널처럼 이어 붙여 15m에 달하는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마치 벽지처럼 전시장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전체 공간을 압도하며 관람객들에게 이미지로 된 숲을 거니는 느낌을 준다. 강씨는 흑백 이미지가 담긴 육면체 블럭을 군데군데 벽돌처럼 튀어 나오게 함으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씨는 “30대 초반 광주에 내려와 무등산에서 ‘내가 누구냐’를 되돌아보는 시간 끝에 목판을 찾았다”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동판, 석판과 달리 목판은 원초적이며 직설적이고 검소하고 순박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목판화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 운동과 맞물려 민중미술로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서양화에 자리를 내주며 시장이 축소됐고 작가들도 많이 배출하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졌다.

지난 17일 상록전시관에 모인 판화계의 지역·중앙 인사들은 이번 전시가 한국 판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억 한국목판화협회장은 “한국 판화는 동판 부문에서 서양에 밀릴지는 몰라도 목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다”며 “강 작가의 이번 전시는 지역이 중앙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판화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상구 화백은 “사실 목판화는 단조로운 표현방법으로 인해 감동을 주기 어렵다”며 “표현방법의 다양성, 단조로운 설치에서 벗어난 입체적 전시 등을 통해 목판화에 생명력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조진호 관장은 “그동안 시장이 축소되며 젊은 작가들이 많이 사라졌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목판화가 소외받았다”며 “광주 목판화 아카이브 구축과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전시를 지원했으며 목판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강씨는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1987년 광주에 둥지를 틀었다. ‘한·중 판화교류전’(2003, 인천·중국 청도), ‘한·불판화교류전’(2007, 프랑스)에 참여하는 등 전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한국 판화를 선보였다. 문의 062-613-5401.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광주연극배우협회 ‘인형의 집’ 공연

22~25일 궁동예술극장

개별 극단의 공연을 볼 때마다 아쉬운 건 조연급들의 연기다. 주역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움직임은 어색한 경우가 많다. 배우 인프라가 그만큼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연극배우협회(회장 이기인)가 매년 한차례씩 진행하는 정기 공연은 연극팬들을 기대하게 만든다. 주역부터 단역까지 각 극단 소속 배우와 프리랜서 배우들의 앙상블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배우 협회가 무대에 올리는 ‘명작 시리즈’는 오랜 기간 연극계에서 자리를 지켜온 고전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지금까지 공연한 작품은 ‘밑바닥에서’, ‘허삼관 매혈기’, ‘벚꽃동산’, ‘세일즈맨의 죽음’, ‘갈매기’ 등이다.

배우협회가 올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다. 22~24일 오후 7시30분, 25일 오후 4시·7시30분 광주 예술의 거리 궁동예술극장.

주인공은 은행가 헬머의 아내 노라.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노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남편이 자신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닌, 단지 ‘인형’으로만 보고 있다는 데 절망한 그녀는 결국 집을 떠난다.

1879년 초연된 ‘인형의 집’은 당시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여성 참정권이 1928년 이후에야 주어진 걸 감안하면 여성이 가정을 박차고 집을 나간다는 건 충격이었을 게 분명하다.

노라 역의 정경아, 헬머 역의 정순기씨를 비롯해 정은희·김상오·문진희·이영환·정다현씨 등이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극단 아트컴퍼니 원 대표 원광연씨다. 원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사회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통념과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존중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fe.daum.net/gjactor. 문의 010-3864-99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 문닫은 상가 불 밝히다

충장미디어산업센터 22~29일 ‘온고지신’展

광주시 동구가 빈 상가건물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충장미디어산업센터’(가칭)에서 22~29일 ‘온고지신(溫故知新)’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2017년 정식 개관에 앞서 열리는 시범 전시로 지역민들에게 미디어아트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행사다.

주제 ‘온고지신’은 충장로 5가 일대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보석, 한복, 옷감을 다루는 상인들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전시는 실내 미디어 전시와 실외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로 나눠 구성된다. 작가들은 대학생 위주로 8개팀 34명이 참여했다.

‘243 이들이 사는 삶’ 팀은 허상(虛像)과 허상(虛想) 사이에 존재하는 실재와 시간을 표현한다. 검은 배경 속 연기같은 형상을 통해 실재와 허상의 대립성과 공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시나브로’팀은 검은 베일에 쌓여있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틀에 저항하는 현대인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외에도 ‘아지호수’, ‘탈’, ‘해윰’, ‘Mad Owls’, ‘Wesen und Schein’, ‘YES’ 등이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출품했다.

22일 오후3시에는 ‘찾아가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 강연 사업’으로 ‘진시영 작가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243 이들이 사는 삶’ 작 ‘허상’

진시영 예술감독은 “전시 뿐만 아니라 변형(transform) 소공연장을 만들어 퍼포먼스와 같은 융복합 장르들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선정돼 2017년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충장미디어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 창의산업지구, 푸른길(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일대) 중심 ‘푸른공동체 마을만들기’, 궁동 예술의 거리 일대 ‘궁동예술두레마당’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Since 1993
자유투어
www.jaUtour.com
광주 지점 062) 371-3757
· 할인 항공권 02)3455-0101

무안 공항 출발!

BEST 호치민 [VN항공]
▶1/6,10,14,18,22
[관광] 호치민/붕타우 5일 1,149,000부터
[골프]
호치민(54홀) 1,499,000부터
호짬+호치민 VIP(54홀) 1,849,000부터

창립 22주년 기념 사전 예약 특별 할인! · 무안 공항 출발

방콕 [TW항공]
▶12/30 ~ 2/24 매주 수요일(6일) / 일요일(5일)
[관광]
품격(4성) 5일/6일 1,090,000부터
고품격(5성) 5일/6일 1,190,000부터
럭셔리요트(5성) 5일/6일 1,290,000부터
[골프]
품격(54홀) 5일/6일 1,490,000부터
품격(36홀+요트) 5일/6일 1,490,000부터
-고품격 +10만원 추가

까오슝 [TW항공]
▶12/25 ~ 1/22 매주 월요일(5일) / 금요일(4일)
[관광]
대만 남부 아리산등정 4일/5일 990,000부터
대만 남부 컨딩 관광 4일 970,000부터
대만 일주 화련 관광 5일 1,190,000부터
[골프]
까오슝 주말 골프(72홀) 4일 1,390,000부터
까오슝 주중 골프(90홀) 5일 1,420,000부터

다낭 [VJ항공]
▶1/1,5,9,13,17,21,25
[관광]
다낭/호이안+1일자유 5일 899,000부터
[실속]다낭/호이안/후에 5일 999,000부터
[품격]다낭/호이안/후에
5일 1,199,000부터
[골프]
다낭 골프(54홀) 5일 1,499,000부터

치앙마이 [TW항공]
▶1/2 ~ 2/6 매주 화요일(6일) / 토요일(5일)
[관광]
[품격]골든트라이앵글 3개국 5일/6일 1,150,000부터
[고품격]골든트라이앵글 3개국5일/6일 1,290,000부터
[골프]
[실속]치앙마이 골프 5일/6일 1,490,000부터
[품격]치앙마이 골프 5일/6일 1,650,000부터
[고품격]치앙마이 골프 5일/6일 1,790,000부터

씨엠립 [ZA항공]
▶12/30 ~ 1/30 매주 수요일(4일) / 토요일(3일)
[관광]
씨엠립&앙코르왓 4일/5일 1,100,000부터
[관광+골프]
씨엠립골프(36홀)+앙코르왓 4일/5일
1,450,000부터
씨엠립골프(54홀)+앙코르왓 4일/5일
1,550,000부터

인천 출발

[동남아]
자유투어 HIT! 오후출발! FUNFUN한 세부! 이슬라 리조트 3박 5일 399,000부터
세일핑보트+나이트투어+체험다이빙+공항세!
보라카이-세미패키지 4일 429,000부터
홈쇼핑 HIT $135특전 하노이/하롱베이+다낭/호이안 5일 449,000부터
홈쇼핑 HIT 골드카드/18시 레이트 체크아웃
수트라하버 마젤란+호핑투어+시내관광+나이트투어 5일 799,000부터

[일본]
특급료칸!
후쿠오카 유후인 구로가와 뱃부 온천 ♨ 3일 349,000부터
일루미네이션 특급호텔+대게!
노보리베츠/도야/오타루/삿포로 ♨ 4일 749,000부터
오션 플라워 [부산] 마음 편하게 떠나는 대마도 2일 159,000부터

[남태평양/유럽]
실속 / 오션뷰 특가! 괌 준특급 홀리데이 자유여행 4일 499,000부터
외항사 특선! 호주/시드니+포트스테판 6일 1,290,000부터
유프라우/3국빅볼관/베르사유/이태리일주!
서유럽 6국 12일 2,190,000부터
꿈보다 언니 블루트비체/두브로브닉/모스타르/할슈타트
발칸 3국 동유럽 2국 9일 1,690,000부터

[중국]
홈쇼핑 특별기획! 중국 속 작은유럽 청도 완전일주 3일 299,000부터
홈쇼핑 HIT/VIP 리무진+5대 특식+특급호텔!
장가계/원가계/천문산/황룡동굴/발마사지 5일 499,000부터
중화 항공 [CI]
타이베이/야류/화련/지우펀+금용천 ♨ 4일 679,000부터

매주 목요일 PM 2:00
듣도보도 못한 가격이 뜬다!
자유투어 싼마켓

· 자세한 내용은 자유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약/상/담 광주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순천점 061)741-9922 나주점 061)332-7400 목포점 061)285-7420